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her's Attachment and Daily Stress on Children's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Multi-Ethnic Famili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 남윤주
교수 이숙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un ju Nam

Professor : So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gather information on demographic statistics,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daily stress variants in order to assess their effects on child's self-concept and depression within multi-ethnic family settings.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targeted 3rd, 4th, 5th and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in Jeonnam. A total of 158 children were surveyed. SPSS for Windows 12.0 was used to carry out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Cronbach's α , correlations analysi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variant affecting self-concept among children from multi-ethnic families wa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Other related individual variants were in order of importance, communication skills, feelings of alienation, and mothers' nationalities. The variant most responsible for having an affect on depression among children from multi-ethnic families was the attachment to their mothers. Other related individual variants were in order of importance, feelings of alienation, stress from peer relationships, mothers' nationalities, and stress from economic and physical environments.

주제어(Key Words) : 다문화가족 아동(multi-ethnic family child), 자아개념(self-concept), 우울(depression), 어머니 애착(mother's attachment), 일상적 스트레스(daily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Sook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3 Fax: +82-62-530-1329 E-mail: sookleej@hanmail.net

* 본 논문은 2009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그 폭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4,71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무려 8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중은 1.2%(1990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11.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빈도가 급증하여, 지난 2006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혼인한 한국남성 중 41.0%가 외국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이와 같은 변화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서로 다른 이중문화속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동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는 등 언어습득 지체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임경혜, 2004), 이와 함께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일부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소외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발달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확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은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강신임, 1999).

실제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5)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 가운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성격상의 특성과 무관하게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외모가 달라서(4.9%)’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서적 충격(자살 충동, 적개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조영달, 2006). 또,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의 정서장애를 나타내기도 하며 다문화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결국, 아동들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부적응은 사회적 부

적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의 학교 중퇴율이 1.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많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안은미, 2007). 이렇듯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혼혈아의 정체감과 사회교육 등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부모를 통해 아동의 실태를 파악(윤형숙, 2003; 임경혜, 2004; 정은희, 2004)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2-3년간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연구들(박은정, 2008; 신혜정, 2007; 안은미, 2007; 이지애, 2007; 정현영, 2006)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을 다루고 있으며 아동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측면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극히 소수(김경자, 2007; 이영주, 2007)에 불과하다.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뢰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격발달에 깊은 관계가 있고, 이미 형성된 자아상은 전 생애를 통한 성공과 행복, 실패와 불행이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긍정적인 측면의 적응에 대한 중요지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의 적응과 관련 있는 우울은 소아청소년기에 겪게 되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가족관계, 교우관계 및 학업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오경자, 임양화, 1989; Kovacs, Krol, & Voti, 1994; Puig-Antich, Kaufman, & Ryan, 1993; Rao, Ryan, & Birmaher, 1995; Rohde, Lewinsohn, & Seeley, 1994)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우울 및 그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반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 애착(오송희, 1997; 옥정, 1998; 유재은, 2002)과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박현희, 1997; 배주미, 2000; 심희옥, 1998; 윤선자, 2003)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여러 실태조사들에서는 구체적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인 어머니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생의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간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심리 사회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아동기는 인지, 사회, 신체적인 면에서 계속적인 성장 및 전이와 질적인 변화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 고통, 짜증스러움과 같은 스트레스를 어느 시기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적절히 경험하면 생활에 활력을 주거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압력은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식욕감퇴, 야뇨증, 말더듬기, 근육경련 등의 신체적 반응과 불안, 신경질, 좌절,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은 아동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로 보이는 증상이다. 또, 불안과 우울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정서경험으로(오경자, 임양화, 1989), 어린 아동의 경우 우울이 생활스트레스와 특히 더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배주미, 2000;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m, 1992). 따라서 애착과 함께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발달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경제적 지위, 국적 등에 따라 자아개념이나 우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 국적에 따라 결혼 동기

와 가정생활 만족도가 다르다는 보고(양순미, 2006)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아개념과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에게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 158명이 연구대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기가 자아개념 형성의 결정적 시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	남	79(50.0)	아버지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9(24.7)
	여	79(50.0)		고등학교졸업	80(50.6)
학년	3학년	45(28.5)	전문대 및 대학졸업	22(13.9)	
	4학년	71(44.9)	대학원 이상	10(9.4)	
	5학년	32(20.3)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3(3.8)
	6학년	10(9.4)		고등학교졸업	86(54.4)
가족 구조	핵가족	117(74.1)	전문대 및 대학졸업	36(22.8)	
	확대가족	41(25.9)	대학원 이상	23(14.6)	
어머니 국적	중국	40(25.3)	아버지 직업	무직, 단순노동, 농업	128(81.0)
	일본	86(54.4)		판매서비스, 자영업	11(7.0)
부모 연령차	동남아	32(20.3)	사무 관리직	17(10.8)	
	4세 이하	51(32.3)	교직, 전문직	2(6)	
	5-9세	62(39.2)	어머니 직업 유무	무	52(32.9)
10세 이상	45(28.5)	유		106(67.1)	
하류층	42(26.6)	전체		계	158(100)
중류층	89(56.3)				
주관적 경제수준	상류층	27(17.1)			
전체	계	158(100)			

주. 본 연구대상의 부모 결혼 형태는 초혼으로 제한하였음

기이고, 아동기 소아 우울이 성인기 우울과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연령대의 아동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3~6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조사 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 구조, 부모의 국적,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직업으로 총 8문항을 구성하였다.

2)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 척도는 기존 척도를 바탕으로(송인섭, 1990; 이경화, 고진영, 2006; 정종진, 1996) 연구대상에 맞춰 문항수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개념을 신체능력(5문항), 신체 외모(5문항), 친구관계(5문항), 부모관계(5문항), 학업(5문항), 일반자아(5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개념의 신뢰도 계수는 하위척도별로 .74~.84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는 Kovacs와 Beck의 아동용 우울척도(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0~2점 Likert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우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 IPPA-R을 옥정(1997)이 변안 사용한 부모 애착척도에서 모에 관한 애착척도를 부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낮은 8문항을 삭제하고, 신뢰감(8), 의사소통(7), 소외감(5)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9~.88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5)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선행연구(김민정, 2005; 민하영, 1999; 한미현, 1996) 등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기초로 재

구성하였다. 하위요소는 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로 각 8문항 씩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5~.87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조사 도구의 제작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예비조사(2007년 11월)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중 다문화가족 아동 각 3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학교별로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방법은 전남 교육청에 의뢰하여 전남지역 초등학교 내 다문화가족 학생 리스트를 받은 후 재학 인원수를 기준으로 5명 이상인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은 한 학교당 5~10부를 배포하여 183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15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계수(Cronbach's α),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하위요인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가족구조, 부모연령차, 경제수준, 모국적, 부직업, 모직업,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과 애착하위변인(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변인(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자아개념과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아개념에 대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어머니 국적#1(동남아), 어머니 국적#2(중국), 아버지 직업 #2(사무관리직)를, 애착 변인 중에서는 의사소통과 소외감을,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 중에서는 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친구관계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애착의 하위 변인 중에서 신뢰감이 의사소통($r = .76, p < .001$) 및 소외감

($r = -.72, p < .001$)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회귀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둘째,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와 Durbin-Watson(DW)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잔차 간 자기 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 변인 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군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군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 모델에서 변인 군 투입 순서는 변인 군들의 발생 순서에 의거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장 먼저 투입하였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강한 안전 기지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Kobak & Sceery, 1988)에 근거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두 번째로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와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0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각 1.74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인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군 3개의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아동의 사회인구학적변인, 애착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군의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모델 I 은 가장 먼저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으로 어머니국적#1, 어머니국적#2, 아버지 직업#2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F = 13.15, p < .001$), 이 때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의 설명력은 20%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국적#1($\beta = -.39, p < .001$)과 어머니국적#2($\beta = -.31, p < .001$)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개념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애착 변인 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인데, 전체 설명력은 모델 I에서 27% 증가한 47.0%로 나타났다($F = 27.19, p < .00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모델 I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던 어머니국적#1($\beta = -.18, p < .01$), 어머니국적#2($\beta = -.17, p < .05$)와 함께, 애착 변인으로 투입된 의사소통($\beta = .24, p < .01$), 소외감($\beta = -.39, p < .001$)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개념 보다 동남아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개념이 낮고,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이 높을수

<표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모델 내 변인들의 영향력

요인	변인	자아개념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 학적변인	어머니국적#1	-.51	-.39***	-.25	-.18**	-.28	-.20**
	어머니국적#2	-.33	-.31***	-.18	-.17*	-.20	-.18*
	아버지 직업 #2	.22	.13	.09	.05	.01	.01
어머니 애착	의사소통			.20	.24**	.22	.26***
	소외감			-.26	-.39***	-.18	-.26**
일상적 스트레스	가족관계					-.03	-.04
	경제 및 물리적환경					-.13	-.13
	학업					-.01	-.01
	친구관계					-.09	-.13
	F	13.15***		27.19***		17.82***	
	R ²	.20		.47		.52	
	R ² 변화량	.20		.27		.05	
	DW	1.74					

주. 어머니국적#1(기준-일본, 비교-동남아), 어머니국적#2(기준-일본, 비교-중국)는 가변수처리 아버지 직업#2(기준-무직, 단순노동, 농업, 비교- 사무관리직)는 가변수처리

* $p < .05$. ** $p < .01$. *** $p < .001$.

록, 소외감이 낮을수록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 군을 추가한 것인데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군의 설명력은 52.0%로 5% 증가하였다($F = 17.82, p < .001$).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군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델 I, II에서 유의미한 변인이었던 어머니 국적#1($\beta = -.20, p < .001$), 어머니 국적#2($\beta = -.18, p < .05$), 의사소통($\beta = .26, p < .001$), 소외감($\beta = -.26, p < .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과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개념이 낮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애착 변인군의 설명력($\Delta R^2 = .27$)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R^2 = .20$),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군($\Delta R^2 = .05$)순이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개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군은 애착 변인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III을 중심으로 아동의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beta = .26, p < .001$)과 소외감($\beta = -.26, p < .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어머니국적#1($\beta = -.20, p < .01$), 어머니국적#2($\beta = -.18, p < .05$)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의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이 낮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자아개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하위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변인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 가족구조, 부모연령차, 모국적, 경제수준, 부직업, 모직업,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과 애착하위변인(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변인(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우울과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중속 변인인 우울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어머니국적#1(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 아버지 직업#2(사무관리직)가, 애착 변인 중에서는 의사소통과 소외감을,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 중에서는 가족

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를 선정하였다.

둘째,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와 Durbin-Watson(DW)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 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 변인 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군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군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 모델에서 변인군 투입 순서는 변인 군들의 발생 순서에 의거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장 먼저 투입하였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강한 안전 기지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Kobak & Sceery, 1988)에 근거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두 번째로 투입하였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마지막으로 투입하였다. 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와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2.2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 - Watson 계수도 2.00으로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독립 변인군 3개의 회귀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군의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모델 I은 가장 먼저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어머니 국적#1(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과 아버지 직업#2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F = 17.20, p < .001$), 이 때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군의 설명력은 18%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국적#1($\beta = .38, p < .001$)이 아동의 우울에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애착 변인 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인데, 전체 설명력은 모델 I에서 34% 증가한 52%로 나타났다($F = 41.83, p < .00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모델 I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던 어머니국적#1($\beta = .19, p < .001$)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 변인으로 투

〈표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모델 내 변인들의 영향력

요인	변인	우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사회인구	어머니국적#1	7.66	.38**	3.90	.19***	4.24	.21***
학적변인	아버지직업 #2	-1.57	-.13	-1.40	-.05	.56	.02
어머니	의사소통			-.99	-.08	-1.44	-.12
애착	소외감			5.74	.57***	4.17	.42***
	가족관계					-1.32	-.10
일상적 스트레스	경제 및 물리적환경					2.21	.15*
	학업					.81	.07
	교사관계					-.58	-.05
	친구관계					3.95	.35***
	F	17.20***		41.83***		31.76***	
	R ²	.18		.52		.66	
	R ² 변화량	.18		.34		.14	
	DW	2.00					

주. 어머니국적#1(기준-일본, 비교-동남아), 아버지직업#2(기준-무직, 단순노동, 농업, 비교-사무관리직)2는 가변수처리
* $p < .05$, *** $p < .001$.

입된 소외감($\beta = .57,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우울이 더 높고,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 군을 추가한 것인데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군의 설명력은 66%로 14% 증가하였다($F = 31.76, p < .001$).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 군중에서 경제 및 물리적 환경($\beta = .15, p < .05$), 친구관계($\beta = .35, p < .001$)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제 및 물리적 환경,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우울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애착 변인군의 설명력($\Delta R^2 = .34$)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R^2 = .18$), 일상적 스트레스($\Delta R^2 = .14$)순이었다. 아동의 우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군은 애착 변인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III을 중심으로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외감($\beta = .42, p < .001$)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스트레스($\beta = .35, p < .001$), 어머니국적#1($\beta = .21, p < .001$), 경제 및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beta = .15, p < .05$)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알 수 있

고,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동남아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우울이 높고, 경제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한 모델 I은 전체 설명력이 20%였다. 모델 II에서는 어머니 애착 변인을 추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모델 I에서 27%증가한 47%로 나타났다. 모델 III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모델 II에 비해 5% 증가한 52%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군은 어머니 애착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군이었다고, 어머니 애착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군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의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소외감,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어머니 국적#1, 어머니 국적#2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소외감

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인에 비해 동남아와 중국인 아동의 자아개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는 어머니 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군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오송희, 1999; 옥정, 1998; Armsden & Greenberg, 1987; Koback & Screey, 1988)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자아개념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박은경, 1992; 이정수, 2006;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Rice, 1990; MeComick & Kennedy, 1994)들을 볼 때,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18%였다. 모델 II에서는 어머니 애착 변인을 추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모델 I에서 34%증가한 52%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모델 I에서 14% 증가한 67%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군은 어머니 애착 변인군이었다.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의 하위 요인인 소외감,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은 친구관계 스트레스, 어머니 국적#1,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경제 및 물리적 환경의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이 클수록,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인에 비해 동남아인 경우, 그리고 경제 및 물리적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 애착 변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 군으로 나타나, 어머니 애착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유재은, 2002; 이정수, 2005; 허나원, 2001; Armsden, McCai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Bowlby, 1980; Holmes, 1992)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 및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중에서 어머니 애착은 자아개념과 우울에 대해 모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군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이웃이나 친척, 친구 등 사회적 지원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동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에 뿌리박고 적응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의 조건이 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있어 어머니 애착에 대한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위해서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출산 전 예비 부모교육부터 어머니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아개념과 우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어머니 출신 국가별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차이가 각 아동의 자아개념 및 우울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아동이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아개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친구관계 영역과 경제 및 물리적 환경 영역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각 요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전남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 3-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결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과 대도시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이외에도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임(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8, 203-228.
- 교육인적자원부(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자(1994). 아동의 자기 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경(1992).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정(2008).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희(1997).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경험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희식, 이혜경, 임경택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송인섭(1990). **자아개념진단 검사**.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1998).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 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오경자, 임양화(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69-76.
-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재은(2002).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선자(2003).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형숙(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2003년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학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59-84.
- 이경화, 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수(2006).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애(2007).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 치료연구**, 13(3), 33-52.
- 정종진(1996). 초등학교 아동용 자아개념 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대구교육대학교), 22, 64-66.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43-956.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통계청(2008). **인구동태, 혼인 추이**. 대전: 통계청.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나원(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msden, G. C., &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683-697.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 and depression(Vol. 3). New York: Basic Books.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2(5), 373-386.
- Holmes, J.(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New York: Routledge.
- Kobak, R. R., & Sr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vacs, M., Krol, R. S. M., & Voti, L.(1994). Early onset psychopathology and the risk for teenage pregnancy among clinically referred girl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2, 8-20.
- MeCo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1992). Prediction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Puig-Antich, J., Kaufman, J., & Ryan, N. D.(1993).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family environment of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2, 244-251.
- Rao, U., Ryan, N. D., & Birmaher, B.(1995). Unipolar depression in adolescents: Clinical outcome in adulthood.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4, 566-578.
- Rice, K. G.(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8.
- Rohde, P., Lewinsohn, P. M., & Seeley, J. R.(1994). Are adolescents changed by an episode of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3, 1289-1298.

접 수 일 : 2009년 8월 4일

심사시작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3일